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2022년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다락방> vol.1

2022년 8월 6일

박물관 가는 길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깨달음의 계단



박물관에 들어서 본격적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계단에는
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모습과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던 시기,
'더러운 위안부'라는 눈총을 받던 때처럼
거친 벽면 같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오셨던
할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그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고발하고
많은 생존자 분들은 꽃화나 그림과 같은 작품을 통해
스스로 겪었던 당시의 실상을 표현하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전시 상황에서의 여성 성폭력 문제는 늘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여성 성폭력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네덜란드, 동티모르 등 각지의 여성들을 일본군인의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군 개인들의 성범죄가 아닌 일본 정부가 개입하여 전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전쟁이 일어나는 각 지역에 '위안소'라는 이름의 성폭행 제도를 국가가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비



일본이 과거에 자행했던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동안 10대였던 피해자들은 모두 90세 이상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제에 맞서 저항했던 생존자들을 기리고 이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 한국 각지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평화비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평화비에 보여지는 소녀의 주먹진 손은 이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존자들의 염원을, 뒷꿈치가 들려진 발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위안부 피해 사실 때문에 멸시당해야 했던 현실을, 그 옆의 빈 자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함께 하고자 소녀 옆에 앉을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서울 시 종로구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국가배상을 촉구하며 현재까지 열리고 있는 집회입니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반 시민은 없고 할머니들이 홀로 수요시위를 시작하실 시기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왜 앞에 나와서 떠드냐고 모욕을 당하고, 남성 노인들이 찾아와 '우리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어디서 이런 요구를 하느냐며 먹살을 잡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며 평화와 여성인권의 목소리를 함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77번째 광복절을 맞은 2022년 8월,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